



방송기술저널



정부, UHD에 150억 원 쏟아 콘텐츠-인프라에 공격적인 투자

정부가 UHD 활성화를 위해 15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감행한다. 4월을 기점으로 각 플랫폼의 UHD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UHD 방송 제작·송출·송신 분야의 핵심장비 개발에 58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핵심 장비는 클라우드 기반 편집시스템, 실시간 고효율 비디오 코딩(HEVC) 인코더, 지상파 송신장비 등 7개며 UHD 제작 공용장비에도 22억 원이 따로 편성된다. 서울 삼암동 누리꿈스퀘어 공동 제작센터 내 디지털 콘텐츠 제작센터 등에 UHD 제작 공용장비를 구축해 외연을 더욱 넓힌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UHD 도입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콘텐츠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우수 영화, 드라마의 UHD 리마스터링(이전에 존재하던 기록 본의 화질이나 음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강력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제작지원 사업도 UHD로 제작하면 가점을 부여해 지원한다.

또 UHD 콘텐츠 제작 교육을 통해 올해 15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UHD 제작업체에 10명을 파견해 교육할 예정이다. 방송사 및 제작사, 제작사, 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한 UHD 펀드가 더해질 경우 지원규모는 훨씬 커지는 셈이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오는 6월 브라질 월드컵, 10월 인천 아시안 게임과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를 통해 UHD 저변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UHD 활성화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료방송의 부족한 UHD 콘텐츠를 정부가 전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분적 UHD 상용화를 천명한 케이블의 경우 전용 채널인 유맥스를 통해 UHD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분량은 200분을 넘기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에 비해 부족한 UHD 콘텐츠를 지원해 달라는 케이블의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며, 정부가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특혜'라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UHD 펀드에 박차를 가하는 UHD 협의체 내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며, 향후 극복해야 하는 부분으로 꼽힌다.

다만 이번 정부의 UHD 투자 정책은 광범위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UHD 펀드 조성이라는 국지적인 분야에서 의외로 간단하게 대승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UHD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상파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UHD 실험방송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TTA의 표준정합모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해당 주파수의 할당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케이블은 4월 10일 UHD 상용화를 발표했으나 부족한 콘텐츠와 HDMI 2.0 셋톱박스 문제 등으로 실제적인 상용화 단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위성방송은 일본에 세계 최초 UHD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빼앗긴 상태에서 케이블과 비슷한 문제로 일정을 조율 중이며, IPTV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셋톱프리' 방식의 UHD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KOBETA 2014 관계로 190호는 6월 4일 발행됩니다.]

UHD 시대, 케이블 관참을까? 곳곳에서 빨간불

전격적인 UHD 상용화를 천명한 케이블 업계의 기세가 놀랍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뉴미디어의 지평을 여는 한편, UHD에 집중 투자해 강력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며 관련 동력을 끌어 모으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 업계를 주도하는 MSO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은 변수로 꼽힌다. 일부 경제지의 분석에 따르면 4대 케이블 MSO의 작년 매출은 1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4대 케이블 MSO의 지난해 실적은 마이너스다. 4대 케이블 MSO 총 영업이익이 4,497억 원으로 전년도 5,852억 원 대비 2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총 매출액의 경우 4개사 모두 2조8,761억 원으로 전년도 2조5,821억 원에 비해 10% 이상 성장했으나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인천에 UHD 제작센터를 세우며 뉴미디어 플랫폼 인프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티브로드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유일하게 2,000억 원을 넘겼으나 올해에는 1,438억 원으로 무려 31.7% 급감했다.

CJ헬로비전은 공격적인 지역 SO 인수합병의 후광 속에서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었으나 알뜰폰 사업 투자에 따른 지급 수수료의 여파로(1,121억 원에서 1,737억 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외에도 UHD 투자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현대HCN은 영업이익이 15.5% 감소했으며 매출상태로 시장에 나온 씨앤엠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동반 하락했다. 심지어 씨앤엠은 지난해 매출액이 6,375억 원으로

전년도 6,448억 원에서 1% 역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1,599억 원에서 1,394억 원으로 15.7% 감소했다.

케이블 MSO의 갑작스러운 지표 하락에는 PP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수수료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티브로드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가 1,021억 원에서 1,223억 원으로 200억 원 이상 증가했으며 현대HCN도 프로그램 사용료가 2,94억 원에서 4,13억 원으로 119억 원 증가했다. 케이블 SO-PP 상생협약이 프로그램 사용료 4% 인상에 합의한 상황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콘텐츠 부흥-창조경제 실현'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경우 케이블 MSO의 수익 계열화 문제와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케이블 MSO 수익 악화의 이유를 무조건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찾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케이블 사업자 상생은 물론, 건전한 미디어 산업의 근간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이기 때문이다. 케이블 MSO의 수익 악화 이유를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이라는 단적인 사례로 재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케이블 MSO 수익 악화 이유를 IPTV, 위성방송과 별이는 심각한 출혈 경쟁에서 찾기도 한다. 실제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 업계의 강력한 도전자는 IPTV 사업자다. 비록 케이블 MSO 권역별 규제완화 및 M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가 풀리면서 통합 방송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케이블의 입장에서 강력한 도전자의 등장은 곧장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재'이기 때문이다.(3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KOBETA 2014, 5월 20일부터 열려 방송, UHD를 열다! Join the UHD world!

올해로 24회를 맞는 KOBETA 2014(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24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가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방송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이엔엑스가 주최하는 본 전시회는 '방송, UHD를 열다!(Join the UHD world)'라는 주제로 4일 동안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관련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는 KOBETA 2014는 1991년 첫 발을 댄 이래 방송 장비 및 미디어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전시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본 행사는 미국에서 열리는 NAB SHOW 그리고 유럽에서 열리는 IBC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방송장비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기술 장비의 미래와 비전을 살펴보는 '세계 방송인의

축제'가 될 전망이다.

KOBETA 2014 기간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주관으로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는 물론 국외 유수의 방송 전문가들이 참석해 방송 정책 및 기술과 전반적인 미디어 이슈를 논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방송 기술 전반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기술정책을 제시하는 본 컨퍼런스는 20일부터 3일 동안 열린다.

작년부터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와 함께 열고 있는 제2회 KOBETA WORLD FORUM은 5월 21일 컨퍼런스 센터 308호에서 지상파 UHD/DTV 방송의 글로벌 현황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지상파 UHD/DTV 방송을 준비하는 유럽과 미국, 한국의 상황을 비교분석하고 제조사의 UHD/DTV 발전 상황도 점검한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유럽의 EBU(유럽방송연맹/European Broadcasting Union), 미국 300여 개 민영 방송사 네트워크인 Sinclair Broadcasting Group(SBG)이 참여

하며 그 외 KBS, MBC, SBS, EBS, 삼성전자가 머리를 맞댄다. 주요 강사는 'UHD/TV in Europe'을 주제로 발제하는 Yvonne Thomas(Project Manager, EBU)와 '미국 UHD/TV 로드맵과 주파수 현황'을 주제로 Mark A.aitken(Vice President, SBG) 그리고 '2014년 대한민국 지상파 UHD/DTV 실험방송 소개와 향후 계획'의 임종곤(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정책국장, KBS 기술연구소 팀장) 등이다.

한편 올해 KOBETA 2014부터 미래방송포럼이 처음으로 열린다. 미디어 플랫폼의 미래와 비전을 국제적 관점에서 논하는 본 포럼에는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sian Pacific Broadcasting Union)와 EBU, NAB(전미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가 참여한다. 주요 인사로는 Jailani Muhamed Yunus(Vice President, EBU)와 ABU 핵심인사, Kevin Gage(Chief Technology Officer, NAB)가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BROADCASTING & TECHNOLOGY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ETA(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사설

반쪽 방통위 출범,
바로잡아야

뼈격거리는 3기 방통위 출범

4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여야 3:2가 아니라 3:0 구도였다. 고삼석 내정자는 청와대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지 못했으며 김재홍 상임위원은 향후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초유의 사태다. 3기 방통위는 시작부터 뼈격거리고 있다.

고삼석 후보자 논란, 매듭지어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삼석 내정자에 대한 자격시비는 정상적인 논의의 과정을 무시한 처사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미 국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황이다. 자격시비에 대한 논란은 이미 종결됐으며,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끝없는 혼돈

상황이 이런데도 최성준 위원장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직이 공전하고 있

지만 별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당 상임위원들은 방통위가 반쪽으로 출범한 자리에서도 부위원장 호선을 끝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부위원장을 맡았던 관례도 부정하며 자기들만의 리그를 즐겼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즉시 납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움직여야 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적 정상화를 주장하며 연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비정상성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언제까지 합의제 방통위의 이름을 더럽힐 것인가. 지금 당장 최위원장은 대응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고삼석 내정자의 임명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전개될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공언했던 것처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움직여야 한다.

지상파, UHD에 역량을 집중하다
지상파 UHD 실험방송 TF 조직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발전을 위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가능성 타진에 나선다. 현재 추진되는 지상파 UHD 실험방송에 있어 일대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4월 21일 지상파 방송 4사(KBS, MBC, SBS, EBS) 기술본부장들은 EBS 사옥에 모여 차세대 지상파 방송

인 UHD-TV의 성공적인 실험방송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실험방송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나아가 본 방송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청자에게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지상파 방송 4사 기술본부장들은 효과적인 실험결과 도출을 위해 4사 공동 실무 협의체인 지상파 UHD 실험방송 TF를 구성·운영하며, UHD-TV 본 방송을 위한 국내 표준화 및 기술기준 수립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들은 올해 개최 예정인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 게임 등을 UHD로 제작하여 실험방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3D, UHD 타고 훨훨

3DTV가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최근 LG디스플레이가 FPR(Film type Patterned Retarder, 필름패턴 편광) 3D 기술을 바탕으로 UHD와의 시너지 효과를 천명하고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과 터키 등 신흥 미디어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3D 마케팅에 나서는데, 한편, 국내 시장도 잡아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LG디스플레이는 편광판과 FPR 3D 필름을 일체화시킨 제품을 개발해 FPR 방식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D 효과 증대와 밝기를 대폭 향상시키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FPR 3D는 화면 주사율 제한 없이 2D와 동일하게 240Hz가 그대로 유지돼 선명도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시장 분위기도 좋다. UHD-TV에 3DTV 기능을 내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호보완적 미디어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3DTV 콘텐츠 개발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특히 영화계에서 차원이 다른 3D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어 각 지역의 주요 영화제에 3D 체험존을 구축, 많은 소비자들이 UHD와 결합된 3D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 부분도 특기할 만하다. 여기에 2013년 UHD-TV가 약 160만 대가 판매된 상황에서 99.4%인 159만 대가 3D기능을 탑

재한 것도 중요한 유인효과로 여겨진다.

한편 3DTV의 미래로 여겨지는 무안경 3D 기술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커머셜디스플레이용으로 고정 렌즈 방식(Fixed Lenticular Lens)의 무안경 3D 패널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TV용으로 자유롭게 2D와 3D 전환을 구현할 수 있는 스위처를 렌즈 방식(Switchable Lenticular Lens) 기술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심지어 전용안경을 제거한 3D 디스플레이, 즉 3DTV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홀로그램 기술의 첫 발을 댄 디아이드(업체)의 기술력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디아이드가 이번에 개발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는 동일한 높이와 각도로 지(wedge)를 넣은 반사판 표면에 LED 광선을 평행하게 구현해 일정한 방향에서 쏘아 반사된 빛이 균일하게 액정 표시 장치(LCD)에 전달되도록 만든 제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드라마 '강구 이야기'를 기점으로 3DTV 기술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국내 토종 3D 기술인 듀얼 스트림 기술이 견제한 가운데 시청자편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것에 중론이 쏠린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전이 불을 뿜는 가운데 최근 '주파수의 공익적 활용 여론'에 수세로 몰린 통신업계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최근 UHD 상용화 바람이 흐름을 타며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지상파 UHD 실험방송이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통신업계가 이러한 분위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4월 17일 한국통신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주파수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어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용 할당을 주장했다. 이에 최진규 명지대학교 교수는 해당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고 발생하는 경매대금으로 지상파 난시청 해소와 UHD 콘텐츠 제작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의 공익적 UHD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통신이야말로 해당 주파수에 가장 어울린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최 교수의 발언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전에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 여겨진다. 해당 주파수를 두고 방송과 통신이 각각 공익성과 경제성을 두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통신이 우위에 있는 경제성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익성 논리까지 부정했기 때문이다. 각자의 장점

만 가지고 다투기 보다는 상대가 가지는 장점을 편취함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강조하는 셈이다.

특히 주파수 경매대금으로 난시청 해소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지상파 플랫폼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주파수의 경매대금으로 낮은 지상파 직접수신율을 개선하자는 발언은 외부의 대응적인 공감대를 끌어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교수의 주장은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지상파의 공익적 UHD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그 자체로 패착이다. UHD가 프리미엄 서비스의 일환으로 유료방송의 전유물이 되는 것과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단순한 사회문화적 가치로만 판단해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반박이다.

또 최교수가 해당 주파수를 경매에 넘기고 그 대금으로 난시청 해소 및 지상파 UHD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의 주장은 최근 물의를 일으켰던 지상파 위성 UHD 가능성 타진 및 미국에서 실시 예정인 주파수 경매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내의 사정과 전혀 맞지 않는 플랜 B다.

최성준, “700MHz 주파수 신중을 기하자”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14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 일정 정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당시 회동에서 최 위원장과 최 장관은 주파수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을 두고 각자의 의견을 타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장관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신중론'은 그 자체로 비판의 소지가 있다. 통신의 경우 가입자에 비해 막대한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어 모바일 IPTV 및 무제한 요금제를 통한 수익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방송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하나에 '미래'가

게다가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상파 UHD는 700MHz 대역 주파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상당한 양의 주파수를 방송에 할당한 외국과 달리 대한민국 지상파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하나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도구를 빼앗고 다른 도구를 주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UHD 콘텐츠 제작 능력에 있어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는 지상파에게 경매대금으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자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최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지상파 UHD의 가능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모든 플랫폼의 UHD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상파 UHD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의 중간결과가 늦어도 5월에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다음달에는 정부의 UHD 산업 발전 로드맵도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놓고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한국통신학회의 주장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홍 rgdsz@kobeta.com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파 UHD 정국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가 할당되지 못하면 사실상 모든 프로젝트는 폐기될 위험에 직면한다.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지상파 UHD 실험방송이 실시되고 있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계속 미룬다면 재원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위 '노는' 주파수를 장기간 방치할 필요는 없다. 빠른 결정과 관련 정책 추진이 절실한 순간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차세대 TV 왕좌 누가 차지할까?

주춤했던 OLED TV 시장, 일본까지 뛰어들며 다시 ‘활활’

우리나라와 중국에 이어 일본 제조사들도 능동형(A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시장에 뛰어들면서 잠시 주춤했던 OLED TV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OLED TV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서 LED를 대체하기엔 '아직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았던 업계에서도 가격 격을 좌우하는 OLED 패널의 생산효율인 '수율'이 급격하게 개선됨에 따라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 제조사들은 OLED 패널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화질 개선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OLED TV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2012년부터 제휴를 맺고 AM OLED 패널 공동 개발에 나서면서 2013년 미국 국제가전전시회(CES)에서 56인치 초고화질(UHD) OLED TV를 공개했으나 결국 비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공동 개발에 중지부를 찍었다. 당시 업계 소식통은 소니와 파나소닉 모두 UHD LED TV 생산에 주력한다고 전했으나 최근 다시 OLED TV 시장 진출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OLED TV 시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맞대결 구도로 형성되어 있다.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지난 2012년 OLED TV를 출시한 데 이어 스카이워스 등의 중국 제조사들이 지난해 말 OLED TV를 선보였고, 오는 5월 1일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말 일본 제조사들까지 OLED TV를 출시한다면 시장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3파전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OLED TV는 말 그대로 스스로 빛과 색깔을 표현하는 OLED 패널을 사용한 TV다. 발광 소재가 자체적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후면에서 빛을 내는 백라이트유닛(BLU)이 필요 없어 LED 패널보다 더 얇은 TV 제작이 가능하고, 명암비가 실제와 같아 동작이 아무리 빠른 스포츠 경기라고 해도 잔상이 남지 않는다. 자체 성능으로는 LED TV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 하지만 LED TV 3배 이상의 가격 때문에 그동안 LED TV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UHD LED TV가 출시되면서 OLED TV는 차세대 TV 시장에서 잠시 물러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OLED 패널 수율이 개선되고,

일본까지 OLED TV 시장에 가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비산업리서치에 따르면 TV용 OLED 패널을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의 패널 수율이 최근 70%로 개선됨에 따라 OLED 패널 가격이 낮아졌다. 패널 공급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은 생산 단가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만큼 OLED TV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비산업리서치는 LG전자의 139.7cm(55인치) Full HD OLED TV 판매 가격이 올 하반기 300~400만 원 선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현재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LG 전자에 맞서 오는 5월 스카이워스와 콘카, 창흥 등의 중국 제조사들이 뛰어들면 가격 하락은 더 큰 폭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업계의 예상보다 더 빨리 OLED TV 시장이 개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LED TV의 '시장성'보다는 OLED TV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당분간은 OLED TV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콘텐츠 분야 등 방송 인프라에 2017년까지 약 6,500억 원을 투자해 UHD 생태계를 조성해 갈 것이다”(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4월 10일 '2014 디지털케이블TV쇼'에서…주머니 사정이 힘든 것으로 아는데, 괜찮을까?

“합의제를 무시한 여론 추천위원 그들만의 행사”(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4월 16일 방통위 첫 전체회의 직전 보이콧을 선언하며…위원장님, 선택한 것이 겨우 이겁니까?

“연내 주파수 할당 미지수, 그 외 우선 확정”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방송과 통신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일각에서 주파수 공동 연구반이 해당 주파수의 방송 및 통신 연내 할당을 포기하고 그 외 영역의 주파수를 먼저 할당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하고 있는 주파수 공동 연구반을 통해 잠정적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UHD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연기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700MHz 대역 주파수의 상하위 통신 할당 전제로 약 54MHz 폭 중 안전행정부에 12MHz 폭, 코레일에 10MHz 폭을 우선 할당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몇 년을 끌어온 지 지부진한 재난망 사업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사고가 빈번해 지하 안행부의 주파수 요구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재난망에 필요한 주파수를 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도 해당 주파수로 지상파 UHD를 추진하려는 지상파에 대해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동 연구반의 주파수 방송 및 통신 연내 할당을 부정하는 스탠스를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4월 17일 한국통신학회가 해당 주파수의 지상파 UHD 활용 가능성을 부정하는 한편, 지상파 위성 UHD 및 주파수 보상경제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한 점도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3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최동환
편집위원 | 이성의
편집위원 | 서성원 안창준 송주호 박명석
편집장 | 최진홍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성전&화성프린트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케이블 UHD 상용화 선언

4월 10일 디지털케이블TV쇼

4월 10일 ‘Smart Cable, Experience More’ (스마트 케이블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2014 디지털케이블TV쇼에서 케이블 UHD 상용화가 선포됐다. 이에 양회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선포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케이블 UHD 방송 상용화의 의미는 영상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나서겠다는 것이다”며 “콘텐츠 분야 등 방송 인프라에 2017년까지 약 6,500억 원을 투자해 UHD 생태계를 조성해 갈 것이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케이블 UHD 상용화에도 어두운 단면은 있다. 먼저 콘텐츠 공급 문제다. 현재 홈조이스의 유맥스가 확보한 UHD 콘텐츠는 200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관련 인프라를 육성하기 위해 6,500억 원 수준의 투자를 실시하고(지난해 6억 원을 이미 투자한 것을 포함해 2014년 110억, 2015년 120억, 2016년 170억 총 406억 원을 투입할 예정/시설투자에는 2017년까지 모두 6,082억 원을 투자할 예정) UHD 협의체의 콘텐츠 분과가 제안한 ‘올போ 펀드’가 탄력을 받는다 해도 200분

에 미치지 못하는 콘텐츠는 분명히 문제다. 유맥스는 하루 4시간 UHD 방송을 내보낸다. 단 순계산으로만 따져도 10일을 넘기기 힘들다. 당장 재방송에 재재방송이 반복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케이블 UHD 동력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유맥스의 UHD 공급 자체가 순조롭지 못한 부분도 압축로 여겨진다. 당장 고가의 UHD 콘텐츠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케이블 업계에 따르면 해외 방송용 1시간 짜리 UHD 콘텐츠는 2년 사용을 조건으로 5,000만 원~2억 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전시용 콘텐츠는 분당 약 2,073만 원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UHD 콘텐츠는 제작 기간이 평균 5개월에 달할 정도로 길다. 그런 이유로 케이블 업계가 UHD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콘텐츠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홈조이스가 케이블 UHD 상용화 직전까지 일본의 소니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추진했으나 불발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의 견제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최정우 홈조이스 대표는 “해외 콘텐츠 제

작은 막 관심을 보이는 시기”라며 “우리가 UHD 방송을 시작하면 콘텐츠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지만 제작은 요원하고 공급은 불안정한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맥스 콘텐츠의 45%는 외국에서 들여올 예정이다. 자체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유한 지상파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단, 티브로드가 국내 방송업계 최초로 UHD 방송센터를 건립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여기에 케이블 UHD 상용화가 전격적인 상용화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케이블이 UHD 상용화를 천명한 4월 10일부터 실제 UHD 방송을 볼 수 있는 권역은 CJ헬로비전 13개 SO, 티브로드 19개 SO, 씨앤엠 7개 SO 등이다. 상반기 내에 64개 권역에서만 소프트웨어 내장 셋톱박스를 통해 UHD 시청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HDMI 2.0 내장 셋톱박스 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고 2014년 UHDTV 모델의 국지성이 더해진다면 이번 상용화는 전격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진홍 rgdsz@kobeta.com

(1면에 이어)게다가 케이블 MSO 수익 악화의 이면에는 최근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특혜 논란을 무시하고 추진한 8VSB 허용도 한 몫 하고 있다는 평가다. 초기 사업비와 구축비용, 실질적인 이윤증대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8VSB 허용이 케이블 MSO의 수익 악화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이블

MSO는 클리어캡 TV와 더불어 8VSB 허용을 마냥 반기지 않는다. 특히 디지털 전환율이 높은 케이블 MSO 사이에서는 미끼상품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8VSB 허용에 대해 뿌리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8VSB가 독이 든 성배라고 불리는 이유다. 여기에 8VSB 허용으로 지상파에 CPS를 납부해야 하는 현실은 케이블

MSO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격적인 UHD 상용화 선언이 케이블 MSO의 수익성 악화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UHD 콘텐츠 제작 및 공급을 케이블 업계가 무리하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UHDTV, 월드컵 특수타나? ... 정책 지원은 ‘빨간불’

‘2014 브라질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면서 초고선명(UHD) 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월드컵 특수의 최대 수혜 상품 중 하나인 UHD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삼성전자와 LG전자, 소니 등 글로벌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UHDTV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UHD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UHD 정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 UHD 경쟁력 강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UHDTV 판매량은 약 1200만 대로 전년 대비 8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디스플레이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고화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UHDTV의 판매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월드컵 시즌을 맞아 고화질과 다채널 음질을 체험할 수 있는 UHDTV를 찾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 전 세계 UHDTV 판매량은 추정치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2면에 이어)한편 TTA를 통한 지상파 UHD 표준통합모델 추진이 6~7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 및 통신 할당을 연내에 확정하지 않고, 그 외 영역을 조기에 할당하는 것은 패착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글로벌 UHDTV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UHD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잡기에 나서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문제는 가장 많은 UHD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가 UHD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앞서 미래부에서 실험방송과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할당과는 별개라고 언급한 만큼 실험방송 이후 지상파 UHD 방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은 지난 10일 제주에서 열린 ‘2014 디지털케이블TV쇼’에서 케이블 UHD 상용화 선포식을 열며 UHD 방송의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UHD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선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UHD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 지상파 방송 중심의 UHD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통신장비 전시회인 ‘NAB Show 2014’

에서도 지상파 방송사를 기반으로 하는 UHD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고든 H. 스미스(Gordon H. Smith) 전미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회장은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UHD 방송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고 향후 2년 이내에 보편화가 완료될 것”이라며 “양질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유한 지상파 방송 중심으로 UHD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세대 방송으로 여겨지고 있는 UHD 방송의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UHD 방송을 상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국내 다른 플랫폼에서도) 세계 최초로 UHD 방송을 상용화할 것 같다”는 발언을 한 만큼 최근 지상파 중심의 무료 보편적 UHD 방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예상도 만만치 않아 UHD 시장 성장세에 따른 정부의 UHD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겐다는 비판이다.

통신과 안행부, 코레일은 700MHz 대역 주파수 외 다른 영역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지만, 지상파 UHD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2014년 방송기술교육원 교육 시작

“대한민국 방송기술의 미래를 만들자”



사단법인 방송기술교육원(원장 문명석)이 2014년 교육을 시작했다. 방송기술교육원은 미래 미디어 방송기술 창의인재 양성사업의 일환

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 산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방송기술 교육을 통한 핵심기술 능력 제고와 경쟁력 있는 방송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2014년 첫 번째 교육은 디지털 신호 시스템(1차)이다. 이에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수원 KBS 인제개발원에서 시작된 첫 번째 교육에 앞서 축사를 통해 “2014년 첫 번째 교육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넸다. 이어 최 회장은 “미래 미디어 방송기술 창의인재 양성사업은 방송기술의 큰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

고 방송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우리 모두의 꿈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앞으로 방송기술교육원과 방송기술인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기술교육원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적인 교육일정을 게시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지만 숙박은 제공되지 않는다. 2014년 첫 번째 교육인 디지털 신호 시스템 이후에는 방송 시스템 설계 실무 교육이 22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민서진 soejin@kobeta.com

수첩 세월호 참사와 규제완화, 방송도 참고해야

규제완화가 불러오는 참사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참혹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무섭고 답답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재를 위해 만난 기자들의 마음도 몽땅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있더군요. 3기 방통위 파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도, UHD 발전 로드맵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 모두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요.

4월 18일, 과학-TT 기자들로 구성된 공동 취재풀단 회합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9시나 10시에 열리는 회합이지만, 18일에는 7시에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언론사들이 대부분 전시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빠르게 모여 17일 있었던 통신학회 토론회 자료를 공유하는 선에서 회합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기자가 쓸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다 규제완화가 가져온 재앙이야.”

듣는 순간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구조된 세월호 선장을 두고 이 승반 조대 대통령과 비교하는 사람은 봤지만(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또 규제완화와 연결되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과 통합 방송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를 지겹게 들었던 저는 당장 이유를 물었습니다.

기자는 간단히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해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세월호는 오래된 일본 여객선을 아무런 제지없이 들여와 무리하게 수직 증축했고, 그러한 부분이 승무원들의 모뎀 해저드와 맞물려 무시무시한 참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이게 다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여객선의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비용을 잘 따져

야 하며, 상황에 맞는 대처가 제각각이라고 봅니다. 손톱 및 규제는 제거하고, 지나친 남용은 억제한다.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죠.

그러나 국민의 안전이나 기타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래도 규제완화보다는 더 엄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디어 전문 기자로서 첫 번째 든 생각은, ‘현 정부가 유료방송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 산업의 부흥을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참 위험하구나’였습니다. 왜냐고요? 현재 정부는 유료방송 규제완화를 통해 미디어 시장을 자본주의의 정글로 만들려 합니다. 물론 대의명분은 경제 활성화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는 공적 미디어 플랫폼은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월호 참사와 유료방송 규제완화는 같은 교훈을 시사합니다. 경제적 가치(세월호 참사-여객선 수익/방송시장-유료방송 부흥)에만 집중해 중요한 공적책무(세월호 참사-승객의 안전/방송시장-공적 미디어 보장)를 무시한다면 향후 엄청난 재앙(세월호 참사-엄청난 사상자/방송시장-방송의 사영화)이 닥칠 것이라는 것일요. 글쎄요, 비약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여론(방송)은 국가의 책무이자 기본 인프라이됩니다. 소중히 지켜져야 하는 가치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술한 오보와 루머가 나돌고 언론의 경마장식 보도행태도 정신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되자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더군요.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선택제한 규제완화에서 시작됐다’ 정말 섬뜩한 하루였습니다.

(‘수첩’은 취재 과정에서 겪었던 인상적인 사건을 편안한 형식으로 서술해 사안에 대한 이해와 배경을 더욱 쉽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8VSB, 케이블도 ‘가우뚱’

시작은 하는데...

케이블 MSO가 논란이던 8VSB 전송 방식 표준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 당시 정부가 공언한 장밋빛 전망은 사라지고, 각 사업자간 눈치만 보며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만 조성되고 있다. 당장 ‘고화질’이라는 소소한 종합편성채널 특혜를 위해 정부가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케이블 MSO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6월부터 8VSB 허용의 수혜를 입은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행정 예고했던 ‘8VSB 허용을 위한 기술기준’을 관보에 게재했기 때문이다. 관례적으로 행정 예고 후 관보에 게재되면 해당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는 경향이 농후한 만큼, 8VSB 허용 정책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한후 미래부는 관보 게재 이후 사업자 신청을 받아 8VSB 변조기 장비 구축을 위한 변경 허가 와 준공검사, 약관 및 요금 신고 등의 승인절차를 통한 상용화 정국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실질적인 주체인 케이블 MSO는 사태를 관망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 8VSB 허용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비용문제다. 미래부가 케이블 MSO의 8VSB 허용 정국에 있어 지원금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기술 변조를 위한 DtoA 컨버터 비용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래부는 8VSB 상품에 대해 가격과 구성에 있어 기존 상품과 동일하도록 명기한 상황이다. 추가 자금 지원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준비하는 케이블 MSO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전적 부담이 예상된다.

또 정부와 케이블 MSO가 8VSB 허용으로 서비스되는 채널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CPS 논란도 뇌관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지상파 재송신 정국에서 케이블 MSO는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부정하는 스탠스를 견지한

바 있다. 그러나 8VSB 허용과 CPS 문제가 맞물릴 경우 의외의 국면을 맞이할 확률이 높은 만큼, 향후 급전적인 문제에 있어 CPS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상파에 할당한 CPS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 MSO가 UHD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8VSB 허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다. 당장 주요 케이블 MSO의 수익 지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를 실시해야 하는 8VSB 허용은 그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몸집은 커지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케이블 MSO들이 8VSB 허용에 전사적으로 나서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관련기사 1면 - UHD 시대, 케이블 편찮을까?)

현재 8VSB 허용에 대해 케이블 MSO 중 CMB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디지털 전환율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 CMB는 150만 명 전체 가입자 가운데 디지털 방송 가입자는 12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8%에 불과한 디지털 방송 전환율을 기록했다.

그런 이유로 CMB는 ‘그나마’ 디지털 전환율이 높은 수도권에 먼저 8VSB를 도입해 막대한 DtoA 컨버터 비용을 아끼면서 디지털 경쟁력을 쌓는다는 복안이다. 다른 케이블 MSO들은 서비스 권역을 한정해 양방향 수요가 적은 공공기관 및 호텔, 병원 등에 우선적으로 8VSB 허용을 도입한다는 제한적 로드맵만 수립한 상태다.

당장 양방향 등이 불가능한 짝퉁 디지털 전환이라는 오명과 더불어 지상파 플랫폼의 형해화, 더 나아가 종편에 대한 ‘소소한 특혜’를 위해 8VSB 허용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 MSO들은 알아져 가는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 8VSB 허용을 전격적으로 결정할 대한민국 미디어의 현 주소다.

최진홍 rgdsz@kobeta.com

3기 방통위, 파행으로 ‘시동’

최성준 위원장 체제의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파행으로 시작했다. 4월 16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 고상석 상임위원 내정자의 청와대 임명이 요원한 상황에서 이를 문제삼은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마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앞두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읽은 듯 “상임위원 한 명이 임명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현안이 산적해 하루빨리 업무를 추진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지만 당분간 ‘반쪽자리 방통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는 16일 첫 회의를 통해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4가지 안건을 보고 받았으며 이날 회의는 최성준 위원장과 야당 추천 허원제, 이기주 상임위원만 참석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모두 빠져 여야 3:0 구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전체회의는 위원장 단독, 혹은 상임위원 둘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열릴 수 있지만 16일 열린 회의는 3기 방통위 첫 회의라는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에 임명장을 받았지만 향후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는 합의제를 무시한 여권 추천위원 그들만의 행사”라고 주장하며 “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합의제 운영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김 상임위원은 2시 30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반쪽자리 방통위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부위원장에 호선된 허원제 상임위원을 둘러싼 논란도 상당한 편이다. 김재홍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호선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호선되도록 한다’는 방통위 설치법 당시 국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3기 방통위 부위원장을 호

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부위원장에 호선된 허 상임위원 본인이 강하게 반박했기 때문이다.

이에 허 상임위원은 “부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돼 있다”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을 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얘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허 상임위원은 1, 2기 방통위에서 전후반기로 나눠 각각 여야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례가 문제라는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허 상임위원은 “미 FCC도 그렇고 옛 방송위원회도 여당 출신이 부위원장을 맡았다”고 강조했다. 해석하기에 따라 자신이 3기 방통위 전체 부위원장을 맡겠다는 발언으로 여겨진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러한 방통위의 행위에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반쪽짜리 3기 방통위, 역주행 즉각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의제로 올라온 현안 하나하나가 모두 향후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도 민감한 현안들”이라며 “여당 추천 위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무슨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최성준 3기 방통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합의제 운영 원칙을 지키고, 다른 상임위원들과 협의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만약 이 같은 원칙과 약속이 첫 단추부터 어긋난다면 사회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16일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위원장을 맡는 방통위 산하 11개 법정위원회 구성, 종합편성채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조정 등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최진홍 / 백선하 기자

종편, IPTV 방발기금 ‘또’ 면제받나

종합편성채널과 IPTV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가 올해에도 무위에 그칠 확률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종편과 IPTV는 지금까지 신생매체라는 이유로 적자폭이 크다는 이유로 방발기금 납부를 면제받아 왔지만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발기금 징수를 위한 공동 연구반을 가동해 ‘정상적인 납부 의욕’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결론은 결국 ‘납부 유예’였다.

방통위는 4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종편의 방발기금 징수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공염불에 그칠 확률이 높아졌다. 방통위 사무처가 상임위원 4인에게 보고한 종편의 방발기금 납부안 3개 중 ‘즉시 징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재홍 상임위원은 비공식 간담회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밝히며 방통위 사무처는 종편 4사 모두 징수 유예 연장하거나 종편이 흑자로 전환하면 그때 징수, 또는 종편 4사 중 한 곳이라도 흑자 전환하면 개별 징수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의 3기 징수안을 종편 4사에 대입했을 때, 앞으로 몇 년 동안 종편은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종편의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통위가 종편 방발기금 납부 유예

근거로 적자폭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발기금 징수 기준은 적자가 아니라 방송광고 매출이기 때문이다. 물론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재정상태 및 방송운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징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종편은 당연히 대상에 속한다. 향후 1사 1미디어법 시대를 맞이한 종편을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IPTV도 방발기금 징수 유예 대상에 속할 것이 유력해지고 있어 논란이다. 의무를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물론, 공동 연구반 내부에서도 IPTV 방발기금 납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래부는 4월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방발기금 납부 대상과 기준을 정한다는 임장이지만 IPTV 방발기금 납부 유예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 대비로 산정하며 그 외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 서비스 매출액,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 사업 관련영업이익을 고려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정한 징수율에 따라 산정된다.

최진홍 rgdsz@kobeta.com

UHD 방송 1호 가입자 탄생

콘텐츠 부족 여전 … 3D 방송 전철 밟을 수 있어

케이블 TV 업계가 세계 최초 초고화질(UHD) 방송 서비스를 상용화한 가운데 첫 방송 가입자가 탄생했다. 하지만 UHD 콘텐츠 부족으로 UHD 방송이 3D 방송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12일 자사 경남 대표 권역인 거제시에서 UHD 방송 첫 가입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UHD 방송 1호 가입자는 경상남도 거제시 고흥동에 거주하는 주부 박경옥 씨(50세, 여)다. 박 씨는 “브라질 월드컵 등 올해 열리는 스포츠 이벤트를 가족들과 함께 실감영상으로 즐기고 싶어서 삼성 커브드 UHD TV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UHD 방송이 ‘반쪽’ 나타났다 사라진 3D 방송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바타 열풍으로 시작해 안방까지 들어온 3D 방송은 차세대 방송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안정 착용의 불편함에 콘텐츠 부족 현상까지 겹쳐 활성화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 전문가들은 “3D 방송이 보편화되지 않고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유료 가

입자에게만 제공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질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UHD 방송도 유료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다보면 투자와 콘텐츠 순환이라는 UHD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제2의 3D 방송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UHD 방송 1호 가입자인 박 씨의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UHD 콘텐츠에 대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2014 브라질 월드컵과 인천 아시안 게임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UHD 방송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브라질 월드컵과 인천 아시안 게임의 UHD 중계방송은 지상파 방송이 주도하고 있다. UHD 실시간 중계 실험방송까지 마친 KBS를 중심으로 UHD 실험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브라질 월드컵 등을 UHD 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계획이 없어 지상파 방송의 UHD 방송은 실

공전하는 국회 미방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지방선거 정국인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핵심은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방송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여부다. 새누리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불가를 외치며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기존합의 사항을 예정대로 처리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방송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종합편성채널의 반발로 여당이 입장을 번복해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4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미방위에 밀린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 일정을 잡자고 며칠 전에 야당에 요청했지만 방송법 중 편성위원회 규정을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해 준다는 동의가 없으면 일정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하며 “편성이라는 건 현행 방송법 규정상, 판례상, 현재 다수 의견상 언론사와 방송사 법인의 고유 권한이다. 말하자면 편성이라는 건 기업으로 보면 경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편성권 절반을 노조에게 주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헌법의 정신이나 질서 면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조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애꿎은 방송 폐계 그만하고 약속이나 제대로

‘한국판 크롬캐스트’ 쏟아진다

TV에 꽂기만 하면 일반 TV를 스마트 TV처럼 볼 수 있다. 35달러(약 4만 원)라는 가격은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이다. 35달러만 있으면 몇 백만 원짜리 스마트 TV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돌풍을 발판삼아 전 세계로 행보를 재추하고 있는 구글 ‘크롬캐스트’ 이야기다.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구글 크롬캐스트는 지난달 13일 전파인증을 받으며 국내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크롬캐스트 출시에 앞서 ‘한국판 크롬캐스트’라며 주목을 받은 ‘에브리온 TV 캐스트’ 여기에 채널 경쟁력을 갖춘 CJ헬로비전과 KT 등 N-스크린 서비스 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돌풍형 OTT(Over-The-Top) 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기존 OTT 서비스에서 발전된 돌풍형 OTT 서비스는 셋톱박스가 크롬캐스트처럼 동글 형태로 휴대성이 뛰어나면서 TV의 HDMI 포트에 꽂기

만 하면 무선 인터넷망(WiFi)으로 기존 TV를 통해 OTT 서비스는 물론이고 기존 TV를 스마트 TV처럼 이용할 수 있다. 돌풍형 OTT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 상에 있는 콘텐츠를 스마트폰에서 앱을 열듯이 간단히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크롬캐스트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에는 현대HCN과 판도라TV가 합작 설립한 에브리온 TV에서 한국판 크롬캐스트라 불리는 ‘에브리온TV 캐스트’를 출시했다.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OTT 서비스와 미래캐스트가 결합된 에브리온TV 캐스트 역시 TV HDMI 단자에 연결하면 에브리온TV가 제공하는 250개 채널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 있다. 가격도 6만 원대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CJ헬로비전과 KT 등의 사업자들도 돌풍형 OTT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선 에브리온TV보다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을 지닌 CJ헬로비전과 KT가 시장에 진입한다면 돌풍형 OTT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협방송 이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케이블 업계에서 준비한 UHD 콘텐츠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케이블 업계는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해 UHD 전용 케이블채널인 ‘유맥스’를 개국했다. 하지만 유맥스의 콘텐츠 자체가 너무 적다. 실제로 UHD 방송 1호 가입자인 박 씨가 유맥스 채널을 연이어 4~5시간 본다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콘텐츠가 편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유맥스 측은 “현재 하루에 5개의 콘텐츠를 4번 순환 편성하고 있고, 요일마다 같은 콘텐츠가 편성될 수도 있다. 1주일에 2개 정도 신규 콘텐츠를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 커브드 UHDTV의 가격은 65인치 790만 원, 55인치 590만 원 수준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몇 백만 원을 투자한 소비자들이 케이블의 UHD 콘텐츠 수준에 만족할 것인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올해 전 세계 UHDTV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2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TV 시장에서선 올해 6% 정도를 차지하며, 내년에는 그 비중이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콘텐츠 수급 부족으로 국내 UHD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UHD 정책 수립이 시급한 이유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켜 달라”며 “여야 원내지도부간 약속만 지키면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 정국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을 이행해야 그 후의 논의도 가능하다는 ‘배수 의 진’을 친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편성위에 사용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구성되면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는 것인데 ‘편성을 통한 방송장악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더 이상 흑세무민을 중단하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대처상황은 본회의가 열리는 18일까지 이어졌다.

한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방송 관련 상임위원회 분리에 대해 유 의원은 나무에 기대어 물고기를 구한다는 사자성어인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빗대어 비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방송규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눠서 하는 것도 유례없는 일인데 상임위까지 분리하자는 것은 더욱 큰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N-스크린 서비스 사업자들은 동글형 OTT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현재 케이블이나 IPTV 등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모바일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품 가격대와 차별적 서비스 등을 놓고 출시 일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OTT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케이블을 끊고 OTT 서비스로 옮겨 타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 ‘코드커팅(cord cutting)’이라는 단어까지 유행했다”면서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유료방송 요금이 미국과 달리 저렴한 수준이어서 가입자의 이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J헬로비전과 KT 외에도 지상파 N-스크린 서비스 pooq과 다음TV도 동글형 OTT 서비스 시장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비스가 제공되면 킬러 콘텐츠인 지상파 콘텐츠의 동글형 OTT 서비스 첫 진출인만큼 그 파급력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ooq의 동글형 OTT 서비스 시장 진출은 최근 모바일 IPTV 입점과 더불어 지상파 콘텐츠의 영향력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단신 뉴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신속함에 앞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는 등의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보도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협회는 “재난보도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자제가 필요한데도 일부 언론이 일련의 취재 보도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며 신뢰를 잃었다”며 “온 국민이 실종자들의 기적 같은 생존을 기원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언론은 무한 책임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또 정부 관계자, 재난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재난보도 준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래의 내용은 이날 협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 ① 세월호 참사 보도는 신속함에 앞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
- ② 피해 관련 통계나 명단 등은 반드시 재난구조기관의 공식 발표에 의거해 보도한다.
- ③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고려대 안산병원 등 주요 현장에서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보도한다.
- ④ 생존 학생이나 아동에 대한 취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 ⑤ 언론은 보도된 내용이 오보로 드러나면 신속히 정정보도를 하고 사과해야 한다.
- ⑥ 언론은 자극적 영상이나 무분별한 사진, 선정적 어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⑦ 언론은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보도를 한다.
- ⑧ 영상취재는 구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근접취재 장면의 보도는 가급적 삼간다.
- ⑨ 기자는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증후적인 보도나 논평을 자제해야 한다.
- ⑩ 언론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백선하 baek@kobeta.com

4월 11일 CBS 노동조합이 서울 목동 본사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측이 약속한 인력충원계획 이행과 이사회외 경영간섭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CBS 본사를 비롯해 각 지역의 노조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CBS 노조가 사측에 원하는 것은 사측이 사실상 파기한 지역발전계획의 촉구와 이사회외 경영간섭 중단이다. 이에 앞서 노사는 지난 1월 16일 지역국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채용계획에 합의했지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바 있다. 이에 노조가 사측에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자 사측은 신입 정규직이 아닌 연봉직 경력 사원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CBS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성명을 통해 “사측에게 묻는다. ‘괴연 인생들하십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에게 불안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뒤덮인 대지보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를 바라보면 ‘진짜 인생들하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며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노사협의를 파기한 사측의 대담함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서진 soejin@kobeta.com

성공적인 지상파 UHD를 위해 KBS, 미래를 쏘다

무료 보편의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의 발전과 비전을 위한 지상파 UHD 실험방송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본지는 KBS, MBC, SBS의 지상파 UHD 실험방송 현안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뉴미디어의 성공을 분석해 본다. 그 첫 번째 순서는 4월 5일 실시간 지상파 UHD 실험방송에 돌입한 KBS다. (원고수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월 5일 KBS가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 국민카드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을 세계 최초로 실시간 지상파 UHD 실험방송(DVB-T2 방식, 60P)으로 방송했다.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지상파 UHD 실험방송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이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에게 UHD 실험국을 허가했다고 밝히며 각 방송사는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6MHz 폭을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KBS는 4월 5일 울산에서 열린 경기를 실시간 지상파 UHD로 송출해 LG전자의 지원을 받아 서울역과 KBS 본사에 별도의 UHD 홍보관을 운영, 일반 시민들도 UHD 프로농구 중계방송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실험방송의 특성상 일반 시청자가 실시간 지상파 UHD를 시청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본 실험방송에서 KBS는 비교적 상위대역인 66번 채널(782MHz~788MHz)을 할당받았다. KBS는 지난 2차에 걸친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통해 700MHz 방송 주파수 대역 6MHz를 활용한 4k 30P 및 4k 60P UHD 방송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번 3차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통해서도 기간 방송망(남산-관악산)을 활용한 단일주파수방송망(SFN) 실험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SFN 방송망 파라미터를 도출하여 향후 UHD 방송망 설계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KBS는 2차례의 실험방송을 통해 '요리인류', '색' 등 대표적인 4k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합실험을 수행하여 상당한 UHD TV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다. 4월 10일 부분적 UHD 상용화를 선언한 케이블과는 상당한 온도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KBS의 3차 UHD 실험방송은(편의상 3차로 지칭한다) 울

해 12월 31일까지다. 콘텐츠 제작 부문에 있어 2012년 1차 실험방송 당시에는 4k 30P 사전녹화 콘텐츠, 2013년 2차 실험방송 당시에는 4k 60P 사전녹화 콘텐츠를 활용했지만 이번 3차 실험방송은 4k 60P 실시간 중계가 포함된 콘텐츠로 실시했다. HEVC 코덱 업그레이드 분야에서 1, 2차 실험방송은 HEVC ver 6.0 (Test Model)이지만 3차 실험방송은 실시간 HEVC 엔코더를 적용했다.

HDMI 인터페이스 분야에서는 1차 실험방송에서 HDMI ver1.4 1개, 2차 실험방송은 HDMI ver1.4 2개였으나 3차 실험방송은 HDMI ver2.0 1개로 진행된다. 또 멀티채널 오디오에서 1차 실험방송은 스테레오(2CH), 2차 실험방송은 5.1CH이었지만 3차 실험방송에는 둘 다 사용됐다. 전파특성 분야에서 1차 실험방송은 4k 30P- RF 전파특성(Ch 66), 2차 실험방송은 4k 30P ↔ 60P RF 상호 전파특성 비교(Ch 66)를 타진했으나 3차 실험방송은 4k 60P 고정수신 혼합 다채널 방송 기술 검토와 Ch 66 출력특성비교(100)200)400W)를 모색한다.

전송 파라미터 조합에 있어 1차 실험방송에는 계획이 없었으나 2차 실험방송은 전송 파라미터 조합 실험을 최초 실시했으며 3차 실험방송에는 SFN을 위한 전송과 파라미터 조합 실험 모두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정합실험에 있어 1차 실험방송은 4k 30P 제작과 이에 따른 송출 및 송신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그쳤다면 2차 실험방송은 60P 시스템을 점검했고, 3차 실험방송은 4k 60P 제작 및 송출, 송신과 2k 30P 제작 및 송출, 송신을 병행 점검한다.

실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KBS는 기간 송신망 기반의 UHD SFN 전송 실험을 목적으로 지상파 UHD SFN 방송망 설계 및 구축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악산 및 남산 송신소 등 2개 기간 송신소에 대한 UHD 송신 시스템을 완비했고 양 송신 시스템에 대한 Clock Locking 기술 적용과 관악산 송신소-KBS 본사 및 남산 송신소-KBS 본사 송출용 링크를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전용망으로 설계했다.

또 지상파 UHD SFN 방송망 송수신 실험을 위해 관련 테

스트를 위한 송신 파라미터 셋을 미리 도출하고 송수신 정합 실험도 실시한다. UHF 채널 66번 출력에 대한 수신특성 측정과 분석을 위해 KBS는 100W, 200W, 400W의 3dB, 6dB 출력 증강에 따른 수신성능을 비교한다. 이는 1, 2차 실험방송 필드 테스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여기에 6MHz 대역에 UHD, HD, SD, 60P, 30P 등 다양한 해상도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인 혼합 다채널 방송 기술도 검토한다. UHD 전송방식인 DVB-T2의 경우 다수의 PLP(Physical Layer Pipe)를 이용하여 가능하며 각 콘텐츠의 요구 품질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실험이지만 이번 3차 실험방송에서는 4k 60P와 2k 30P 두 가지 콘텐츠를 DVB-T2 2개의 PLP를 활용해 전송하고 이에 대한 송수신 실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HEVC 인코더를 적용한 송수신 정합 실험과 60P Display Interface용으로 HDMI ver 2.0 적용을 통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간소화 타진을 바탕으로 향후 인천 아시안 게임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UHD로 실시간 중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KBS는 3차 실험방송 기간 동안 HDMI 인터페이스와 멀티채널 오디오, 실시간 인코더 적용 등을 꾸준히 타진하며 11월에는 필드 테스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BS는 성공적인 실시간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위해 기존 관악산 송신소를 보강하고 새로 남산 송신소를 구축했다. 양 송신소 모두 DVB-T2 방식을 점검하고 최대 전송 비트를 36.56Mbps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둔다.

수신 시스템 분야에서 KBS는 RF 신호에서 TS 스트림 분리 및 ASI 전송이 가능한 DVB-T2 Demodulator를 테스트하고 HEVC Real-time 4k 60P디코더를 통해 TS 스트림 Demux 후 4k HEVC 60P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녹화해 비디오/오디오 신호를 HDMI 2.0으로 전송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

최진홍 rgdsz@kobeta.com

ATSC 3.0, 어떻게 봐야 하나 지상파 UHD 전송방식 '논쟁'



UHD 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제조사인 LG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방송장비 전시회 NAB 2014에서 세계 최초로 북미식 디지털 기술 ATSC 3.0을 기반으로 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연했다.

이 전시회에서 LG전자는 북미 최대 방송장비 업체인 게이트에어(GatesAir)와 공동으로 시연을 실시했으며 해당 기술은 차세대 영상압축 기술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e)와 OFDM(직교주파수분할) 방식을 통해 영상을 송출했다.

특히 해당 기술이 지상파 UHD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LG전자가 시연한 ATSC 3.0은 지상파 1개 채널(6MHz)로 UHD 콘텐츠와 고해상도 모바일 방송 콘텐츠를 동시에 송출했기 때문이다. 송출된 모바일 방송은 시속 250km의 속도로 이동 중에도 시청이 가능하다. 또 해당 시연을 통해 LG전자는 ATSC 3.0이 방송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양방향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도 증명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지상파 UHD는 북미식인 ATSC 3.0보다 유럽식인 DVB-T2를 더욱 선호한다. 실제로 4월 5일부터 KBS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실시간) 지상파 UHD 실험방송은 DVB-T2 방식이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1, 2차 UHD 실험방송에서도 DVB-T2 방식을 고수했다.

이처럼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이 DVB-T2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ATSC 3.0보다 DVB-T2는 기술 완성도 차원에서 더욱 유리하다. 2015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ATSC 3.0보다 DVB-T2가 선도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2015년 12월'이라는 시기의 문제가 UHD 정책 추진의 지연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더 자세히 보자면, DVB-T2는 이미 4년 전 완성단계로

접어들었다. 현재 방송 선진국인 유럽을 중심으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빠른 기술적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ATSC 3.0은 다르다. 2015년 12월 후보 표준안을 도출하며 찬반투표로 '안'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용화는 빨라야 2017년이다. 명확한 표준이 2017년에 등장하는 ATSC 3.0을 기다려 지상파 UHD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는 법이다. 당장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지상파 UHD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ATSC 3.0을 기다려 2017년 지상파 UHD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쟁자인 유료방송이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속속 UHD 상용화를 천명하는 상황에서 지상파 UHD가 너무 늦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전송방식에 있어 DVB-T2를 선호한다고 해도, 해당 방식이 대한민국 지상파 UHD 표준 전송방식은 아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지상파 UHD 무선국을 허가하며 명확한 전송방식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UHD 협의체 3개 분과가 도출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올해까지 각 플랫폼의 UHD 로드맵을 설정하겠다는 전제로, UHD 전송방식 결정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래부는 "지상파 UHD 표준규격(기술기준)은 한 번 결정하면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상파 UHD 도입정책 결정 및 주파수 확보상황과 그에 따른 도입일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부는 "지상파 UHD 표준으로 거론되는 DVB-T2는 유럽에서 SD→HD로 전환하기 위해 2009년에 제정된 표준으로 현재 일부 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UHD 실험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ATSC 3.0은 미국에서 내년 말 표준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2000년대 중반 디지털 전환정국에서 전송방식을 전환할 때 당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주파수 효율면에서 유리한 유럽식보다 미국식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한 바 있다. 당시의 결정이 방송과 통신의 700MHz 대역 주파수 논쟁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강한 상황에서, UHD 전송방식 정국에서도 정부의 결정은 신속하지만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정리하자면,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전송방식에 있어 DVB-T2를 염두에 둔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상황

에서 정부의 선택은 신중하며, 이런 상황에서 ATSC 3.0 가능성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LG전자가 시연한 ATSC 3.0은 주파수 할당전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민감한 '주파수 효율'에 있어 상당한 강점을 드러냈다.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압축방식에 있어 대부분의 흐름이 HEVC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ATSC 3.0과 DVB-T2의 발전 추이가 지상파 UHD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작년 미국의 싱클레어 미디어 그룹(300여 개 민영 방송사 네트워크)이 ATSC 3.0을 통한 UHD 실험방송을 실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클레어 미디어 그룹은 디지털 전송방식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방송 네트워크로서 선진적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곳이다.

그런데 싱클레어 미디어 그룹은 ATSC 3.0을 활용한 UHD 실험방송만 실시한 것이 아니다. 작년 8월 29일부터 미국 FCC가 626MHz 주파수 대역(CH 40)에서 DVB-T2 기반의 UHD TV 실험방송을 허가했는데 이 실험에 동참한 것도 싱클레어 미디어 그룹이다. 당시 싱클레어 미디어 그룹은 서비스 대상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Link Budget을 산정하고 모바일, 고정수신 등 다양한 전송 모드를 통한 Scalable QoS에 대한 검토는 물론, 방송구역(coverage)과 서비스 영역(service contour) 매칭 기술 도출에 기존 6MHz 채널 대역기반 UHD TV 전송을 위한 OFDM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했다.

ATSC의 고함인 미국도 ATSC 3.0과 DVB-T2 방식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해왔다는 뜻이다.

한편, 지상파 UHD 정국에서 제조사인 LG전자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LG전자는 최근 KBS의 실시간 지상파 UHD 실험방송에 협력하며 KBS 본사와 서울역에 UHD TV를 설치했으며, 이번 ATSC 3.0 시연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와 더욱 내밀한 UHD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LG전자는 3DTV에 있어서도 SBS와 합작 드라마를 제작할 정도로 뉴미디어에 역량을 쏟고 있으며, 이는 뉴미디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 일본의 기술력에 대항하려는 큰 그림을 가능하게 만든다. 또 직접수신을 제고에 있어서도 LG전자는 삼성전자와 더불어 KBS와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다만 ATSC를 주도하는 실세가 대한민국의 LG전자라는 점은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제2의 안현수와 지상파 UHD TV

오 건 식 SBS 기술기획팀 부국장

성황리에 막을 내린 소치 동계 올림픽은 여러 가지 화제가 만발한 대회였다. 특히 김연아 선수의 여자 싱글 피겨 은메달과 남자 쇼트트랙의 노메달 관련 기사는 흥수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이름이 '빅토르 안'인 안현수 선수의 귀화 스토리와 그의 선전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여파로 한국빙상연맹이 도마에 올랐고, 속칭 '짹짹'으로 의심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관련 기사 등이 연일 보도되었다.

되돌아보면 안현수 선수 사태의 본질은 '실력 있는 선수가 올림픽이라는 큰 경기대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갈 방법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아닐까 한다. 부상으로 인한 슬럼프는 있었지만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도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면, 그때 당시의 선택은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거나 다른 나라 국적으로 출전하던가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UHD TV 방송, 즉 초고화질 TV 방송이 방송계의 핫한 이슈다. 뉴미디어 트렌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UHD TV 방송이 차세대 전송매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아날로그 TV가 수십 년 이상을 버텼지만 HDTV

도 수십 년을 버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전환주기는 점점 짧아져서 4k UHD TV 상용화가 되고 나면 얼마 안 되어서 8k UHD TV 실험방송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전환주기 관련해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콘텐츠 유통을 위한 플랫폼의 존재여부다. 분명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부분의 강자다. 이전보다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분명 Major(메이저)다. 그런데 콘텐츠 제작에 빼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빼어난 실력을 발휘할 UHD TV 대회에는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실력이 있는 선수의 출전이 배제된다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특히 'UHD TV 종목 대표선수로 유료방송이 먼저 출전하도록 하자'는 논리는 어찌 보면 도마에 오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과 유사하지 않은가? 분명히 실력이 좋으면 계속해서 대표선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상파는 어느 선수들보다 먼저 트랙에 나와서 몸을 풀고 있었던 상태였다. 심지어 다른 종목선수는 700MHz 대역 주파수에 출전시켜 주면 할당비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서 분위기

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3자가 보면 '짹짹'으로 이해할 만하다. '짹짹'의 본질은 실력이나 경쟁력과 무관하게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안현수 선수는 귀화할 제3국이라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UHD TV를 하고자 하는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귀화할 제3국이 없다. 우리 지상파 방송사도 UHD TV 방송을 하기 위하여 러시아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프리카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순전히 지상파 방송사가 UHD TV 방송용 주파수가 없어서, 4k UHD TV 방송하고자 푸에르토리코로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나 푸에르토리코 국민이 행복할 것인가? 솔직히 지상파 방송사는 안현수 선수가 부럽다. 실력을 펼칠 제3국이 존재하므로.

다시 한 번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에게 배정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더구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시한 '국민행복 700 플랜'에 의하면 지상파가 700MHz 대역을 독점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정녕 정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 세입자인 지상파를 푸에르토리코로 내모는 야박한 집주인이 될 것인가?

원래 주파수라는 집의 주인은 국민이며 정부는 대리인이 라고 알고 있다. 집주인인 국민은 세입자인 지상파 방송사를

700MHz 대역 주파수에서 내쫓으면 무료의 지상파 UHD TV를 시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까?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것 같다. 대리인이 '모바일 광고로 플랜'을 이야기 하면서 지상파 대신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기존보다 많은 전세금이 들어온다고 강조했을 터이니, 무료인 지상파 UHD TV 방송 시청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은 쏙 빼고.

일방적으로 방을 빼게 되면, 향후 무료 보편적인 UHD TV를 시청하고 싶은 국민은 제3국에 귀화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러시아에 귀화한 안현수 선수는 어찌든 우리와 달리 UHD TV 시청을 무료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얼마 전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은 "UHD 콘텐츠가 UHD 방송의 핵심이고 UHD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지상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최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UHD 세계 최초 타이틀은 위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플랫폼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장관의 발언을 통해 아마 지상파도 조만간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 믿으면서, 대리인의 고매한 양식을 기대해 본다.

NAB 2014, 한미 양국 방송협회 회장단이 만나다

한미 방송협회 회장단이 전격 회동했다. UHD TV와 CPS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NAB 회장단 "지상파 중심의 UHD 상용화 추진돼야" 세계 최대 방송통신장비 전시회인 'NAB Show 2014'에서 지상파 방송사를 기반으로 하는 UHD 방송 정책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에 할당해 UHD 방송을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잇따라 제시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관심이 지상파 UHD 실험방송에 쏠리고 있다.

고든 H. 스미스(Gordon H. Smith) 전미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이하 NAB) 회장은 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한국방송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UHD 방송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고 향후 2년 이내에 보편화가 완료될 것"이라며 "양질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유한 지상파 방송 중심으로 UHD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세대 방송으로 여겨지고 있는 UHD 방송의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UHD 방송을 상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용모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도 브라질 월드컵과 인천 아시아 게임 등 주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와 고품질 자체제작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실험방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뒤 "아무리 훌륭한 기술적 진보라도 완성도 높은 콘텐츠가 수반되어야 진정한 방송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면서 지상파 UHD의 대중화를 위한 국제적 파트너로서 교류를 강화하자고 답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상파 방송사가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HD보다 4배에서 최대 16배까지 선명한 화질의 UHD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다수의 국민들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UHD 방송을 무료 보편적 서비스

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정책을 추진하며 지상파 방송사들의 외침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상파 UHD 실험방송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5일 KBS는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2013~2014 KB 국민카드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성공적인 실험방송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BS를 포함한 MBC, SBS의 실험방송 계획도 잇따라 발표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를 표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상파 실험방송을 계기로 유료방송 중심인 정부의 UHD 정책 변화 가능성과 TTA의 지상파 UHD 표준준합모델 채택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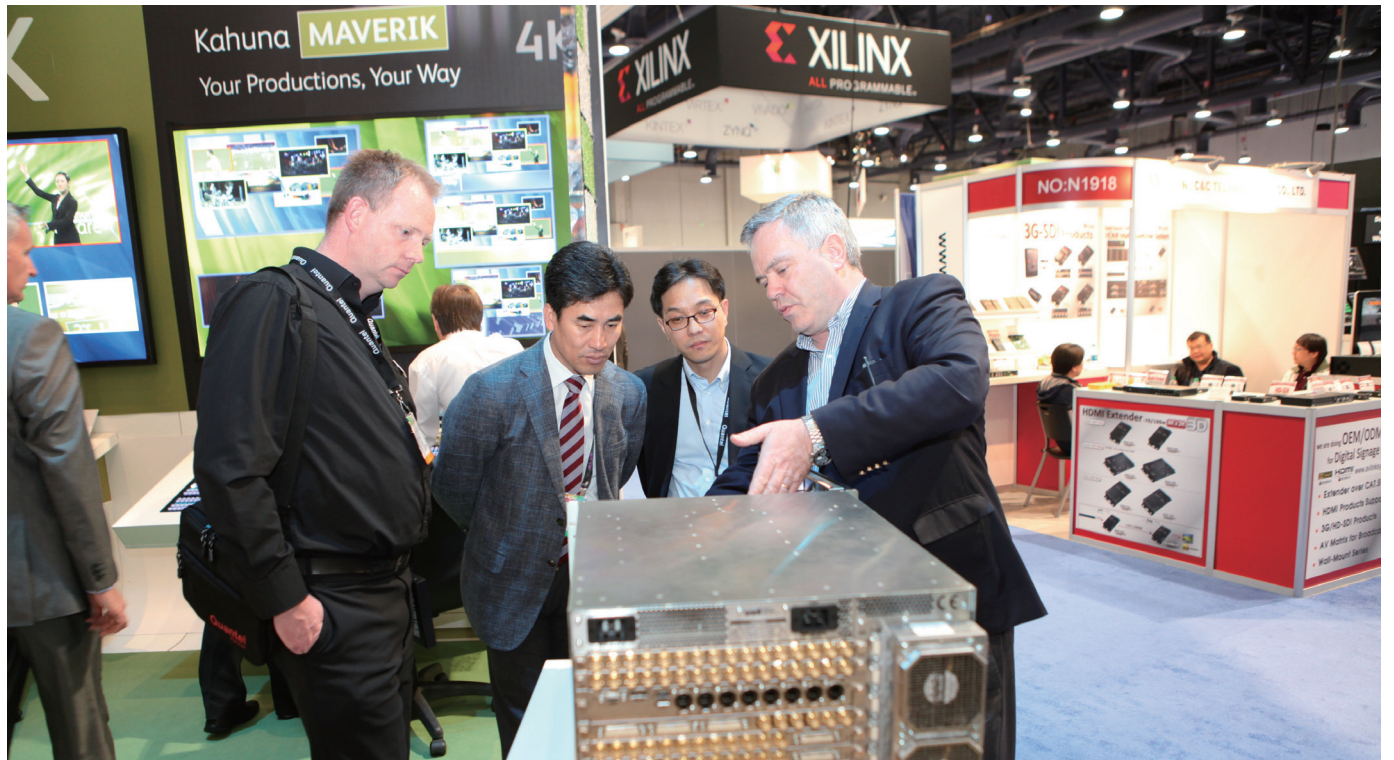
백선하 baek@kobeta.com

NAB 회장단 "CPS, 자유로운 계약 필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NAB show 2014에서 한미 양국의 방송협회 회장단이 전격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방송협회는 지상파 중심의 UHD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CPS(재송신료)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에서 격렬한 CPS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3년 8월 CBS와 타임워너케이블(케미스트에 인수 예정) 간 CPS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변종 OTT 서비스인 '에어리오'의 등장으로 관련 논쟁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고든 H. 스미스(Gordon H. Smith) NAB 회장은 "분쟁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며 특히 블랙아웃 같은 사태는 더욱 그러하다"는 전제로 "(하지만) FCC는 사업자간의 자율계약(free negotiation)에 개입해 정부의 모델대로



중재할 권한이 없음(no have authority)을 분명히(cheaply)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방송사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계약을 막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이는 작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송신 분쟁 발생 시 적극 개입해 재송신 유지 및 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국내 상황과 대조된다. 스미스 회장은 운전한 지상파 콘텐츠 저작권 보호보다는 유료방송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내의 상황을 꼬집은 셈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NAB의 스미스 회장 외에도 크리스 오닐러스 최고운영책임자(COO : Chief Operating

Officer)와 마거릿 캐슬리 부회장, 캐린 라이트 수석 비서관이 배석했고, 한국방송협회에서는 이용모 SBS 사장과 함께 안광한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박재만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최동환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다양한 국제방송의 흐름을 파악하고 5월 20일 예정된 KOBAS 2014 준비 및 협력을 위해 NAB show 2014를 참관했다. 이에 최동환 연합회장은 한미 방송협회 간담회에 참석하는 한편, NAB show 2014 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독려하고 최신 방송 동향을 파악했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삼석 해법, 꼬여만 간다

유 호 준 미래발전연대 연구위원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파행도 이런 파행이 없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 내정자인 고삼석 교수는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지 못해 불출석했으며 같은 야당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도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부위원장직을 두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으며, 이를 통한 내용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방통위 위원장은 침묵만 하고 있다.

아니,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마냥 침묵하고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말 뿐이다. 최 위원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며 현재의 상황을 그때 그때 면피하려는 수준에서 답보한다. 방통위의 특성상 공정한 판단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지만, 최 위원장이 보여주는 행동은 답답하기만 하다.

게다가 최 위원장이 전체회의 당일 보여준 행동은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도 지적했지만, 방통위는 16일 오전 여당 위원 3명만 참석한 채 그들만의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방통위 산하 법정위원회 구성과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 구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 위원회’란 오명을 듣고 있는 판에 이를 해결할 공리는 하지 않고 무슨 현안들을 처리한단 말인가. 최 위원장의 판단에 기가 찰 뿐이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합의제 행정기구의 장으로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다행이던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이 방통위의 합의제 성격을 강조하며 했던 발언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렇게 말해놓고는 취임하자마자 비정상적 출범과 독선적 운영을 강행하면서 국민 앞에 천명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급하고 두려워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가. 현 정권이 최 위원장을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으로 임명한 배경에는 공명정대한 법관의 판단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불편한 침묵을 견어내고 당장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여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문제의 실마리도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 파행에 눈을 감아버린 최 위원장의 실책이 너무 크다. 취임식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통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방송광고 규제 개선과 KBS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3기 방통위의 비정상적 출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기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뜻만 연신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최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없다. 아이러니하지만 최 위원장이 키를 쥐고있다. 현 정부가 사법부 고위 인사의 행정부 빼가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최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재량을 허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방통위 파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쥐고 있다고 본다. 최 위원장이 나서 고삼석 내정자의 임명을 촉

구한다면, 여야의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방송통신 정책의 합일성을 더욱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의 전격적인 임명은 3기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야 3:0의 구도를 이어가기 위해, 또 방통위를 흔들기 위해 개입되는 모든 외부의 손길을 최 위원장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청와대로 찾아가야 한다. 대통령 담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최 위원장에게 국민들이 보내는 마지막 최후 통첩이다.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선교 위원장도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 최 위원장과 닮았다. 한 위원장은 공전하는 방송법 개정안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으며 어떠한 중재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다. 투쟁과 논란의 연속인 정치판이지만, 이견 해도 너무한다.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방송을 책임지는 두 고위 인사의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통합 방송법, 문제는 지상파다

정 흥 채 21세기패러다임연구소 부소장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 방송법이 논란이다. 밀실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통합 방송법 제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통합 방송법은 규제 일원화 차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지만 그 방향은 이미 상실했다. 이제 통합 방송법 논의는 각 방송 사업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출렁일 것이다. 물론 모든 책임은 정부와, 또 국회에 있다.

통합 방송법은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 합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미 케이블에 대한 권역별 규제 완화가 풀린 상황에서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가 초읽기에 돌입했고, 자연스럽게 IPTV와 케이블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IPTV, 특히 KT가 반대하는 점유율 규제 합산이 따라온다. 이러한 부분은 IPTV법과 방송법을 따로 분류하는 현행 체제 안에서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점유율 규제 합산이 통과되고 통합 방송법이 제정되기 직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IPTV와 케이블은 각자의 득실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양 사업자가 규

제 합산에 동의하고 통합 방송법을 무분별하게 흡수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히 많다. 물론 여기에는 제정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따른다.

다시 돌아와서, 통합 방송법이 모든 법안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추진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당연히 각자의 이해관계만 남발될 것이다. 케이블은 전국 사업자인 IPTV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치열하게 몸집을 불리며 역량을 키울 것이고, 당연히 지역 미디어의 공적 책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IPTV는 당연히 직접사용채널을 노릴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케이블의 힘은 지역성에 나오기에, 그들이 버리는 지역 미디어의 강력한 무기인 직사채널은 IPTV의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합 방송법의 문제점이다. 지나친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선순환 구조가 막혀버리는 상태. 이러한 동맥경화가 미디어의 공적 요소를 잠식하고 궁극적인 딜레마로 남겨질 것이라는 불안이 있다.

하지만 통합 방송법의 가장 무서운 문제는 유료방송

규제 완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엄청난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킬링 포인트는 따로 있다. 바로 지상파 방송의 지위 변경이다. 실제로 통합 방송법 연구반에서는 3개의 분과를 통해 모든 방송 사업자의 시장 지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지상파도 장담할 수 없다. UHD 정국에서 단순 콘텐츠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일을 보면, 이번 통합 방송법이 IPTV를 품으며 지상파의 위상에 변화가 있을 확률은 높은 편이다.

물론 지상파 방송사의 플랫폼적 지위에 대해 고민하는 분위기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속성에 매몰되어 플랫폼적 기시감을 연속적으로 파괴할 경우, 앞으로 사태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공영과 민영 방송사가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전체 방송 시장의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방송학 개론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적당한 흐름과 상호의 견제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려면 적어도 공영 방송의 플랫폼적 지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다만 여기에도 전제는 있다. 통합 방송법이 콘텐츠 사업

을 주도할 필수적인 이해 불가침의 영역을 가져간다면, 통합 방송법 내부의 지상파 플랫폼 지위는 달라진 콘텐츠의 흐름에 따라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생긴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의 흐름을 통합 방송법의 근거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지상파가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통합 방송법을 통한 국가 인프라의 위치를 박탈당한다면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완전한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미디어 시청권이 지켜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은 통합 방송법 연구반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반론에 직면하지만, 적어도 황당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현재 통합 방송법 연구반은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인 안건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사업자의 이권다툼과 더불어 지상파 방송의 국가 인프라 자격에 대한 시비는 이미 예약되어 있는 상태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통합 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의 규제 일원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지, 기존의 방송 사업자를 흔들고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부정하는 행태로 흘러가면 곤란하다.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발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 터 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 독 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KOBA 2014

www.kobeta.com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CONFERENCE

제24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Join the UHD World!

2014
5.20-22
COEX

- 주제
Join the UHD World! 방송, UHD를 열다
- 주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한국이앤엑스
- 장소
COEX 3층 Conference Center

- 세미나 사전등록(유료)
KOBETA홈페이지(www.kobeta.com) KOBASHOW홈페이지(www.kobashow.com)
- 사전등록비 : 회원/학생 : 20일(3만원) / 20·21일, 20·22일(8만원), 21·22일(11만원) / 20·21·22일(12만원)
일반(비회원) : 회원 / 학생에서 2만원 추가
- 현장등록비 : 사전등록비에서 2만원 추가
• 컨퍼런스 유료등록을 하신 분은 전시회 참관이 무료입니다.

5.20(화)
Day 1

강의실	세션	시간	주제	소속 및 강사
307호	SNS & Big Data	13:00~13:50	미디어기업의 SNS 활용 전략	이종수 KBS 뉴미디어홍보팀 팀장
		14:00~14:50	통합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OVP 서비스	이정규 tbs 방송기술국 차장
		15:00~15:50	방송, 미디어 시장에서의 Big data 기술 활용	조용노 한국EMC Global Services 이사
		16:00~16:50	소셜유희픽과 Avid	류병수 한국아비드 이사
308호	UHD TV 기술	13:00~13:50	UHD TV 방송을 위한 기술 및 표준화 현황	조숙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책임연구원
		14:00~14:50	UHD TV 핵심 기술 분석 - HEVC 고효율 압축 표준	호오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15:00~15:50	UHD 카메라 비교와 제작환경 변화사례	김상일 SBS A&T 부장
317호	2014 방송기술 트렌드	13:00~13:50	NAB 2014 최신기술 동향 Review!	정병희 KBS 기술연구소 팀장
		14:00~14:50	UHD TV를 비롯한 2014년 방송기술 주요 이슈 점검	김상진 SBS 뉴미디어개발팀 부장
318호	다채널 방송	15:00~16:40	지상파 다채널 실험방송 추진 현황	정재우 EBS 교육방송연구실 연구원 / 고우종 KBS 부장
		13:00~13:50	유통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서비스 활용	오연희 KBS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14:00~14:50	장애인 방송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한성희 KBS 기술연구소 연구원
	방송 부가 서비스	14:00~14:50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IoT 패러다임	김지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15:00~16:30	변화하는 IT 시대의 미디어의 혁신 방향	

5.21(수)
Day 2

강의실	세션	시간	주제	소속 및 강사
307호	4k 디스플레이	10:30~12:20	UHD/4K 디스플레이의 화질 이슈와 전망	신수근 티브이로직㈜ 부장
		13:00~14:50	한일조명감독 대담 '사극조명의 영상미학'	
		15:00~15:50	중국판 [我是歌手, 나는 가수다] 조명디자인 사례	김원영 MBC 영상기술부 차장
308호	UHD TV 전망	10:30~11:20	UHD TV 방송기술 개요 및 국내외 동향	김병선 KBS 기술연구소 연구2부 팀장
		11:30~12:20	UHD TV 기술의 응용과 산업 활성화 방안	김연배 ㈜픽스트리 부사장
	월드 포럼 무료세션	13:00~16:50	2014 KOBA 월드 포럼 UHD TV WORLD FORUM	참가 기관 : EBU, SBG(미국, Sinclair Broadcasting Group), KOBETA(대한민국 방송사 : KBS, MBC, SBS, EBS), 삼성전자
317호	차세대 오디오 I	10:30~11:20	라디오 방송기술 이슈 및 뉴미디어 시대의 미래 전망	유재복 KBS 제작기술센터 라디오기술국 부장
		11:30~12:20	아날로그 FM 방송에서의 5.1CH 서라운드	장상원 CBS 기술연구소 연구원
	차세대 오디오 II	13:00~13:50	차세대 오디오 트렌드에 대하여	이현준 오디오매거진 대표
		14:00~14:50	실감오디오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강경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실장
		15:00~15:50	Future of Entertainment Technology	김재현 돌비코리아 대표
318호	스포츠 이벤트 제작	10:30~11:2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제작	고문안 KBS 홀로그램팀 팀장
		11:30~12:20	2014 인천아시안게임 국제신호 제작 및 IBC 운용	조용석 KBS 중계기술 부장
	예비방송기술인 무료세션	13:00~13:50	방송과 미디어 변화의 이해	김병수 KBS 중계기술 감독
		14:00~14:50	디지털라디오 기술 및 서비스 동향	서흥수 KBS 기술기획부 부장
	양방향 TV	15:00~15:50	EBS Interactive TV 시범방송 사례	이성운 남서울대학교 교수 고병석 EBS 편성기획부 차장

5.22(목)
Day 3

강의실	세션	시간	주제	소속 및 강사
307호	송출시스템 I	10:30~11:20	Network-based Unified MCR Automation	박정기 SBS 뉴미디어개발팀 차장
		13:00~13:50	중강현실을 이용한 방송 제작	오종연 KBS TV기술국 콘텐츠 특수영상부 팀장
	송출시스템 II	14:00~14:50	SBS 8뉴스센터 비디오월 운영	안정준 SBS A&T 보도기술팀 감독
		15:00~15:50	4K와 통합 미디어 전송을 위한 Network 솔루션	오준석 ㈜산애크 전무
308호	UHD TV 제작 I	10:30~11:20	SBS 실시간 워터마크 송출 시스템	유성 SBS 뉴미디어개발팀 책임연구원
		11:30~12:20	Sony 4K UHD 제작 솔루션과 Vision	양우진 소니코리아㈜ 부장
	UHD TV 제작 II	13:00~13:50	Achieving better UHD TV images with On Set Look Management	Alaric Hamacher 광운대 정보콘텐츠대학원 교수
		14:00~14:50	EBS 4K UHD 콘텐츠 제작 사례	김제범 EBS ENG영상부 차장
317호	방송공학회 특별 세션	15:00~15:50	UHD 영상 제작 테크닉	최윤희 MBC 종합편집부 차장
		16:00~16:50	Grass Valley의 라이브 4K/UHD 제작 워크플로우	삼아지브이씨㈜
	3D의 미래	10:30~11:10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지상파방송의 과제	이상길 KBS 기술연구소 연구위원
		11:10~11:50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오감방송 기술	안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책임연구원
318호	UHD 카메라	11:50~12:30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한준구 경북대학교 교수
		13:00~13:50	무안경 다시점/초다시점 3DTV 기술동향 및 이슈	이광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
	미래방송 I	14:00~14:50	3D 스캐너를 활용한 캐릭터 애니메이션	윤영민 EBS 영상그래픽부 감독
		15:00~15:50	UHD TV 장비 동향 및 압축 기술	함상진 KBS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318호	미래방송 II	16:00~16:50	Panasonic 4K Varicam / HS Varicam과 4K 워크플로우	김경민 파나소닉코리아㈜ 시스템솔루션팀 과장
		10:30~11:20	소셜 큐레이션 이란	권재광 KBS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11:30~12:20	KBS 세컨드스크린 서비스 플랫폼, 티벗(TVUT)	이재호 KBS 기술연구소 차장
		13:00~13:50	지상파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 전략	이만규 KBS 기술연구소 차장
318호		14:00~14:50	방송 환경 변화와 지상파 매체전략	최선욱 KBS 방송문화연구소 박사
		15:00~15:50	망중립성과 방송 플랫폼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
		16:00~16:50	LTE 이동통신 시스템을 활용한 방송서비스 기술 - eMBMS	김준수 한국산업기술대 조교수

Conference Session Schedule

강의실	시간	5.20(화)	5.21(수)	5.22(목)
307호	10:30~12:20	x	4K 디스플레이	송출시스템 1
	13:00~16:50	SNS & Big Data	방송조명	송출시스템 2
308호	10:30~12:20	x	UHD TV 전망	UHD TV 제작 1
	13:00~16:50	UHD TV 기술	월드 포럼 무료세션	UHD TV 제작 2
317호	10:30~12:20	x	차세대 오디오 1	방송공학회 특별 세션
	13:00~14:50	2014 방송기술 트렌드	차세대 오디오 2	3D의 미래
	15:00~16:50	다채널 방송		UHD 카메라
318호	10:30~12:20	x	스포츠 이벤트 제작	미래방송 1
	13:00~14:50	방송 부가서비스	예비방송기술인 무료세션	미래방송 2
	15:00~16:50	특별 강의	양방향 TV	